

연말까지 경기장 30~60% 목표

경기장·도로 공사 진행 상황

2018평창동계올림픽 G-3년을 맞아 경기장과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13개 경기장 가운데 신설되는 중봉 알파인, 슬라이딩센터(썰매 경기장),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쇼트트랙, 아이스하키 I, 아이스하키II 중 5개는 이미 착공했고 스피드스케이팅은 재설계 중이다. 경기장 진입도로 중 기존에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로 지정된 9개 노선 대부분은 착공했다.

■경기장을 연 말이면 최고 60% 진척=중봉

알파인 경기장의 공정률(이하 지난 1월 말 기준)은 7.5%, 슬라이딩센터는 14.6%, 피겨·쇼트트랙은 8%, 아이스하키 I은 6.6%, 아이스하키II는 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재설계가 38% 진행 중이다. 모든 경기장은 올 연말이면 30~60%의 공정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완공돼 선수들에게 연습장으로 제공될 경기장은

■경기장 공정률

구분	2015년 계획공정률	1월 현재
중봉 알파인	40%	7.5%
슬라이딩센터	60%	14.6%
스노보드	50%	설계공정 75.2%
피겨·쇼트트랙	52%	8%
아이스하키 I	53%	6.6%
아이스하키II	53%	8%
스피드스케이팅	30%	재설계 38%
컬링	31%	설계 47%

현재 5개 경기장 이미 착공 ... 슬라이딩센터 연말 트랙 완공
진입도로 16개 노선 건설 ... 간평리~횡계리길 마무리 단계

슬라이딩센터다. 슬라이딩센터는 올 연말이면 트랙 부분 시공이 마무리 된다. 중봉 알파인 경기장도 내년 10월까지 회전·연습코스 조성이 완료 된다.

강릉 체육시설단지에 건설 중인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은 내년 11월 건설공사가 끝나 12월에는 테스트이벤트가 개최된다. 아이스하키 I·II 도 내년 11월까지의 건설공사가 모

두 완공된다.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은 오는 4월 재설계가 끝난 후 착공 된다. 도와 동계조직위는 2017년 2월 테스트이벤트 개최를 위해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장 진입도로 16개 노선= 16개 노선의 진입도로에는 총 5,607억원이 투자된다.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대관령면 횡계리 간 7.2km의 지방도 456호선은 올 연말이면 80%의 공정률을 기록한다. 평창 봉평면 면

온리~무이리 간 5.5km인 지방도 408호선, 평창 대관령면 차항리~용산리 간 군도13

호선 4.2km의 올 연말 예상 공정률은 각각 35%, 45%다. 강릉시 교동 종합운동장~난설현로를 잇는 올림픽파크 진입도로의 올 연말 예상 공정률은 60%다.

최원식 도 동계올림픽본부건설추진단장은 "경기장은 경제성과 사후 활용 모두를 감안해 가장 효율적인 시설로 건립 중"이라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걸돈다

도내 발주 7건 불과 16개 시군 발주 전무

정부가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을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강원도내 지자체의 무관심과 인식부족으로 걸들고 있다.

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된 공사는 7건에 불과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계약하는

방식으로 원·하도급간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거나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업체 도산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10년 전국 모든 지자체가 발주하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모든 공사로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 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용한 발주건수는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각 2건, 원주국도관리청이 1건에 그쳤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철원군과 고성군이 각 1건씩 발주했을 뿐 나머지 16개 시군의 발주건수는 전무했다.

도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건수는 2010년 22건, 2011년 25건으로 반짝 증가하며 제도 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나

타냈지만 2012년 13건, 2013년 6건으로 발주물량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외면받고 있는 것은 발주자 자율의 임의 제도인데다 발주자의 무관심, 종합건설사들의 반대, 오랜 도급 관행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봉찬 전문건설협회 도회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규정돼 있지만 강제력이 없는 임의규정이어서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세금낭비를 방지하고 건설업계 상생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군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총 614억 25건 추진

국방시설본부 올해 집행계획

올해 국방시설본부는 총 2조4203억원에 달하는 시설사업을 선보인다. 또 614억 원 규모의 군 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CM) 용역 25건도 발주할 예정이다.

한국CM협회는 국방시설본부와 함께 9일 서울 논현동 건설서관에서 관련업계 임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국방시설본부 군 시설사업 집행계획 및 건설경기 전망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성수 국방시설본부 건설사업처장은 "올해 2조4203억원 규모의 군 시설사업 3901건을 집행하는데, 재정사업은 1조9818억원(3831건), 대미사업 3542억원(57건), 임대형 민자사업(BTL) 709억원(2건), 이전사업 134억원(20건)을 각각 차지



9일 한국CM협회와 국방시설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5년 국방시설본부 군시설사업 집행계획' 설명회에 회원사 임직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시설본부가 8013억원(171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 3391억원(733건) △강원 3293억원(756건) △경상

3084억원(560건) △경기북부 3002억원(992건) △충청 2219억원(560건) △전라 1201억원(267건)이 뒤를 잇는다.

최지희기자 jh606@

지난해 국내 건설수주 107조원

2013년보다 17.7% 늘어
주거용 건축 증가 영향
민간 토목은 1.6조 감소

지난 2013년 91조원으로 급락했던 국내 건설수주가 작년에 100조원대를 회복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용 건축 증가가 전체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발표한 국내 건설수주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2013년보다 17.7% 증가한 107조4664억원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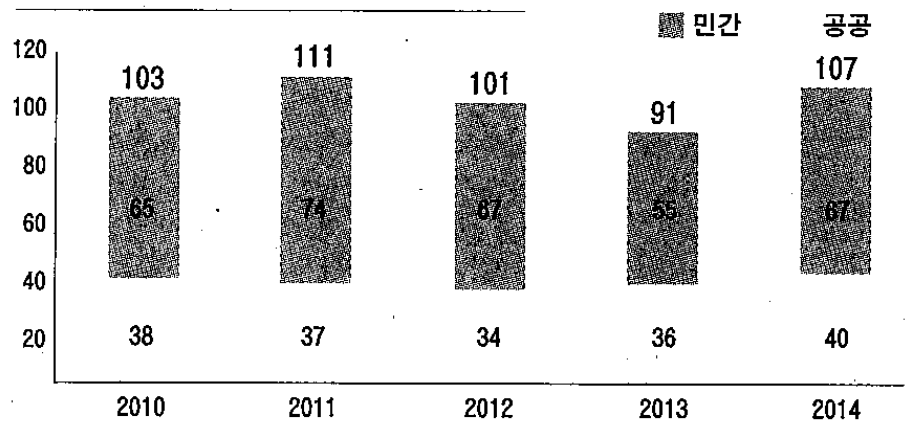
2013년 수주액은 전년보다 10.0% 급락하면서 최근 10년간 가장 적은 91조3069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 2007년 127조9118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1년 한 해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그러나 작년에는 2013년은 물론 2012년(101조5061억원) 실적을 웃돌면서 2006년(107조3184억원) 수준을 회복했다.

협회 관계자는 “2014년 건설수주가 전년도의 극심한 침체를 극복하고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기저효과에 따른 영향이기는 하나 전년도의 수주실적을 만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회복세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거용 건축공사가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실적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재건

국내 건설수주액 변동 추이 (단위:조원)



축·재개발 등 민간부문 주거용이 전년보다 47.8% 증가한 35조8286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오피스텔·숙박시설 등 상업용 건물(31.4%)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민자사업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민간토목은 9조8408억원에서 8조1957억원으로 16.7% 하락했다.

발주기관별로는 국영 기업체가 18.0%, 공공단체가 36.1% 늘었고, 민간은 21.0%의 증가율을 보였다.

민간과 공공으로 나눠보면, 민간부문은 지난 2013년 55조1367억원에서 작년 66조7361억원으로 21.0% 증가했다.

특히 건축공종이 같은 기간 45조2962억원에서 58조5403억원으로 29.2% 늘어났다. 비주거용 건축물 수주는 부진했지만, 신규 주택과 재건축의 호조가 민간부문 상승을 이끌었다고 협회는 분석했다.

반면 민간토목은 민자사업 부진으로 2012년의 같은 기간 9조8406억원에서 8

조1956억원으로 16.7% 줄었다. 공공부문 수주액은 40조73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공공토목이 대형 국책사업이 없는 상황에서도 도로와 철도를 포함한 지자체의 SOC 물량 증가로 20조633억원에서 24조5342억원으로 22.3% 늘었다.

공공건축은 보금자리 주택이나 혁신도시 공사가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주거용, 학교, 병원, 관공서 물량이 부진했다. 그러나 사육이나 문화체육시설 등의 호조로 같은 기간 16조1069억원에서 16조1965억원으로 0.6% 증가했다.

한편 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국내 건설수주 동향은 통계청의 건설경기 동향 조사와 협회 자체 조사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신규 수주뿐만 아니라 장기계속공사와 공사비 증액분 등이 포함된다.

김정석기자 jskim@